NH농협

후보 10명중 최연소… 변화·혁신 주도

"현장소통·경영혁신 실현"

강 호 동 합천율곡농협 조합장

율곡농협 모범적으로 개선, 4선 성공
고령화·성장둔화 지역농축협 활성화
실질적 농업소득 3000만원 시대 목표
일방통행형 경영 아닌 현장 중심 경영

기호 2번 강호동 후보

1963년생(56세)
대구 미래대 세무회계과 졸업
농협대 경영대학원 수료
합천 율곡농협 (前) 상무
합천 율곡농협 조합장 (현) 4선
농협중앙회 (前) 이사
경남농협운영협의회 (前) 의장
농협경제지주, 농민신문사 (前) 이사
(사) 한국딸기 생산자대표조직 회장(현)
(사) 한국 친환경농업협의회 이사(현)

주요공약
◆지역농축협 중심의 농협
◆중앙회 미래전략실 신설
◆지역농축협 지원 대폭 강화
◆경청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

기호 2번 강호동 합천율곡농협 조합장은 이번 제24대 농협중앙회장 후보들 10명 가운데 최연소다. 1963년생으로 56세다. 그만큼 바뀐 시대에 맞는 젊은 최고경영자(CEO)의 필요성과 농협중앙회의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강 후보는 27일 메트로경제와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창립 60주년을 맞게 되는 농협중앙회는 지역농축협 중심의 새로운 농협으로 재창립할 때"라며 "정부·지자체장과 국내 유수기업 등에 40~50대 리더들이 포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회도 시대에 맞는 새로운 CEO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선거는 초·재선 대의원 조합장이 약 70%로 지난 선거에 비해 많이 젊어졌다.

강 후보는 경영약체였던 율곡농협을 모범적인 농협으로 탈바꿈시키면서 조합장 4선에 성공했다.

중앙회 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한 경험까지 살려 중앙회의 향후 60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농촌형 농협에서 30년 이상을 살아온 철저한 농업현장 중심의 조합장 출신"이라며 "전국의 지역농축협과 조합장님들의 바람인 중앙회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역설했다.

먼저 지역농축협이 제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는 "농업의 고령화와 성장둔화에 따른 지역농축협 사업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농협 본연의 임무인 농축산물 생산과 유통부문에 지역농축협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은 물론 농촌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원을 확대해 지역농축협을 생활·복지종합센터로 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중앙회에서는 농가소득 50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농가소득은 4207만원이며, 이 중 실질적인 농업소득은 1300여 만원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강 후보는 스마트팜과 로컬푸드활성화 등으로 실질적 농업소득을 3000만원 시대에 진입토록 한다는 목표를 잡았다.

그는 "경제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해 사활을 걸고 추진하겠다"며 "농업과 4차 산업의 융·복합을 비롯해 청년농업인 육성, 금융사업과 시너지효과 창출, 농산물 유통구조혁신 등 중앙회로 경제사업 지원기능을 일원화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젊은 후보답게 소통과 현장을 우선으로 꼽았다.

강 후보는 "지난 60년간 농협은 농협중앙회 중심의 운영으로 중앙회서 결정하고 지도하는 형식의 일방통행형의 경영을 해왔다"며 "지시하는 회장이 아닌 현장의 소리를 적극 실천하기 위해 현장의 소리를 더 많이 듣고, 직접 현장으로 뛰어가 해결하는 새로운 농정의 길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회의 경영혁신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인 요구"라며 "새로운 농협운동을 펼쳐 나가는 동시에 미래먹거리 준비와 향후 경영혁신을 주도할 '미래전략실'을 설치하고, 철저한 성과 중심의 인사와 지역농축협과 중앙회 법인·타지역 간 인사교류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농산물 유통 전문가… 전문성·능력 활용

"기본충실, 농가소득 향상"

천 호 진 前 북대구공판장 사장

비조합장 출신 지역농협서 33년
농협중앙회 지위·권한 지방에 이양
경영·법률 등 필요시 전문인력 파견
미래비전, 요양병원 설립·운영 제시

기호 3번 천호진 후보

1962년생(57세)
상주농업전문대학 졸업
건국대학교 농공학과 졸업(학사)
건국대학교 대학원 농업교육학 졸업(석사)
건국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MBA) 수료
농산물유통 경영자과정 수료(AT)
농산물 디지털유통전문화 과정 수료(경북대)
1986년 서문경농협 입사
(전)1991년 북대구공판장 경매팀장
(전)2012년 가락공판장 사업총괄 본부장
(전)2016년 북대구공판장 사장
(현)법부무 서울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위원

주요공약
◆지역농협 중심의 상생경영
◆조합원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경영
◆신먹거리 창출 통한 미래경영
◆축산, 원예·인삼 등 특작사업 활성화

기호 3번 천호진 전 농협북대구공판장 사장은 이번 제24대 농협중앙회장 후보들 10명 가운데 농산물 유통 전문가로 꼽힌다.

비조합장 출신이지만 농산물 유통분야에서 한길을 걸어온 만큼 지금 농협의 위기를 돌파할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천 후보는 27일 메트로경제와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한국농업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기본에 충실하게 생산농가와 조합원의 소득을 올려야 한다는 전제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며 "지역농협을 포함해 33년 농협인으로써 농산물 유통분야에서의 전문성과 능력을 활용해 농협의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후보는 농협 경영 철학으로 상생·소득·미래경영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농가소득 안정화로 농협의 뿌리를 단단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천 후보는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의 실질적 달성을 위해 생산농가와 조합원의 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중앙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경로를 단순화한 유통시스템을 갖추고, 시장에서의 가격지배력을 강화해 적정가격을 보장해 주는 생산물 책임판매라는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농민조합원의 실익을 증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스템적으로 안정화된 신용사업 외에 경제사업 분야에서 지역농협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농가소득을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농산물 유통전문가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약속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쌀생산 농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그는 "쌀의 경우 변동직불제에서 고정직불제로 바뀌는데 대해 중앙회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며 "국가예산에서 농업부문 예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5%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후보는 새로운 리더십으로 농협중앙회의 지위와 권한을 과감히 지역농협에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 실정과 시장 환경에 맞게 지역농협이 최대한 자율경영을 할 수 있도록 중앙회가 그 역할을 해 줘야 한다"며 "과도한 관리 감독 기능이 아니라 상호 협력하고, 고통을 분담하며 체계적으로 도와주는 서비스조직으로 중앙회가 대전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중앙회 내에 지역조합 경영지원부서를 신설해 경영·인사·사업·법률 등 전반에 걸쳐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을 파견하는 서비스를 제안했다.

미래비전으로는 요양병원도 제시했다.

천 후보는 "요양병원은 고령화 시대에 농협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라며 "거점별 중대형요양병원을 중앙회와 지역농협이 함께 설립·운영하고, 지역농협은 요양원을 운영해 충분한 수익구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 후보는 "상생경영으로 지역농협 모두가 하나의 울타리에서 함께 가는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4차 산업시대를 맞아 도농·지역간 농협들이 서로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상생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안상미 기자